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9월 18일 11시

장소 : 성동구의회 제1회의실

(11시00시 개의)

●**간사 의정팀장 조남문** 바쁘신 시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의정팀장 조남문입니다.

본 회의는 2019년 2월 11일 시달된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난 7월 1일 개정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근거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연수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할 위원장을 호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선출된 위원장께서 개회선언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이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절차 진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 과정은 간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4조3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은 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 가지로 성동구하고 한양대가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맺고 있고, ○○○ 교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드

립니다.

●간사 의정팀장 조남문 감사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위원님이 선출 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선출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한양대학교에서 지방자치 강의를 하고 있는 ○○○입니다.

아까 의장실에서 인사 나눌 때 보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성동구의 발전을 염원하시고 현장에서 이끌어 가시는 지역의 큰 지도자님들이 이 위원회에 오신 것 같고요, 또 이 공무국외심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단발성, 일회성이지만 이 국외연수 자체는 의정활동이나 구민들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을 다루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이렇게 진행을 맡도록 추천해 주신 ○○○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심을 버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카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에 따라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 상정에 앞서서 오늘 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위원회 간사인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출장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의정팀장 조남문 의정팀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출장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동구의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전체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박7일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2개국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적지 관리 및 역사문화 활용을 통한 관광개발 성공 사례와 전통재래시장 운영 현황, 지역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심분야 전문지식 습득은 물론 구정 활용에 대한 견문기회로 판단됩니다.

방문단은 의원 열 분과 수행직원 다섯 명, 총 15명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연수반을 구

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과 역사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사업 분야,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지역도시재생 분야 등 상임위원회별 중심으로 의원 개개인별 관심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수 추진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자그레브대학교, 드브로브닉 관광청,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류블랴나 시청 등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해당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단 그룹별 의원간담회 및 사전설명회 등 사전준비 모임을 통해 연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공무국외출장 일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계획수립에 도움을 주신 위탁업체와 사무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회의록 및 출장 결과보고서는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방문기간 중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관련 의정활동 분야에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의정팀장님, 이번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방금 이번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내용,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질문이나 또는 반대의견이나 필요성 등 의결에 필요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습니다만은 이번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대상국가, 목적, 내용의 대강은 정하신 것 같고 구체적인 일정은 여기 배석하신 연수업체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필요한 내용을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연수업체에서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위원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행경비가 열 명 의원 중에 유독 의장님만 숙박비도 비싸고 식대도 비싼 이유는 뭘니까?

●의회사무국 서무주임 이명진 그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일반 의원님들과 다르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나 항공비 등 모든 여비가 차등 책정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그러면 숙박을 더 좋은 데 하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 서무주임 이명진 원칙은 1인실을 쓸 수 있게 규정 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2인실 방을 쓰시고 비행기도 1등석을 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2등석으로 사용하신다 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간단하게 일정을 한번.

● **월드투어캠프 대표** ○○○ 월드투어캠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라고 합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시대나 전근대사를 봤을 때도 상당히 옛날부터 발전한 지역입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발전을 이룬 곳들이 바로 발칸지역입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잘 보존돼 있고, 가시면 보고 겪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날은 베니스를 경유해서 슬로베니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슬로베니아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유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슬로베니아를 잘 안 가니까 잘 모르고 있지만 슬로베니아가 알프스 끝자락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유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지역이 바로 슬로베니아입니다.

자연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소모임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바로 이 슬로베니아입니다.

마치 최선진국 같은 스위스 같은 느낌이 나는 곳이 바로 슬로베니아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슬로베니아 블레드성입니다.

이 성이 단순히 방문에 그칠 그런 성이 아니고요 아주 관리 면이나 조직적인 면이나 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블레드성을 한번 감으로 해서 슬로베니아 사람들의 어떤 행동거지, 문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 ○○○○ **위원** 우리가 설명을 다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공무로 가잖아요.

일정을 잡으셨으니까 공무 중심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잡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죠.

우리가 관광을 어떻게 하자고 듣자는 게 아니니까.

● **월드투어캠프 대표**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그레브대학을 넣은 이유가 우리나라 대학은 약간 구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괴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자그레브대학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대통령도 배출한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그레브대학을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째 날 저녁에 시간 내서 가려고 하는데 시장입니다.

성동구의 일반적인 시장들이 재래시장도 있고 축산물시장도 있고 해서 이쪽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재래시장들이 약간 너저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재래시장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방문하셔가지고 공부해 오셔가지고 현장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수도를 따라서 스플리트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유적지가 많은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유적지가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고요.

스플리트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 가서 저희들이 발전상을 보는 것, 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걸로 집어넣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두브로브니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죠. 전 유럽인들이 많이 방문해서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는 관광청 정도는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 문제라든가 실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도 약간 복원도 하고 있어요.

그런 관리 부분, 문화재를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다오르간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위에 이쪽 지역이 약간 퇴폐적인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시민들이 친환경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서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런바다오르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 시간관계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상세한 것은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기로 하고요, 지금 저희가 국외출장 심사포 항목에 비추어보면 두 번째 항목에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4번에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번에 기관방문 대상은 적정한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항목의 평가와 관련해서 어디를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공부하는가.

이게 연구 방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밖에 있는 부분은 사실 이거 배우러 가시는 거잖아요. 연수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공무로 공부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거기 관광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수적인 겁니다.

공부하러 여기서 저기 가다가 거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둘러볼 수 있는 거고 그곳이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한번 눈길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평가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제2일차에 자그레브대학교에 크로아티아 교육체계 및 관계자, 아까 말씀 중에 시민교육 쪽을 의식한 것 같아요.

성동구의 시민교육을 위해서 자그레브대학과 시가 어떤 협력관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누구를 만나도록 되어 있나요?

●월드투어캠프 대표 ○○○ 거기의 관리 사무자, 우리로 말하자면 과장님 정도 되십니다.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 주제가 교육 체계인데 그냥 유아교육, 초중고 교육, 대학교육인지 시민교육인지 그것만 확인될 수 있을까요?

●월드투어캠프 대표 ○○○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한 게 일단은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을 해달라 해서 우선 도서관,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일반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가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위원장 ○○○ 예. 시설이요.

그리고 3일차는 지금 특별기간이라 담당자는 나와 있지 않고 4일차에 두브로브닉 관광청을 방문하시네요? 여기는 누구하고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

●월드투어캠프 대표 ○○○ 여기는 관광청 보면 관광청 안에 담당국장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청 담당매니저가 나와서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거의 20%가 문화관광산업으로 먹고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5일차 국립공원 방문하는 데도 기관방문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장방문인 것 같고요.

●월드투어캠프 대표 ○○○ 네.

●위원장 ○○○ 6일차에 류블라나 시청을 방문하시네요. 시청에는 시장님하고 만나시나요?

●월드투어캠프 대표 ○○○ 아직까지 시장님 섭외는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방문하게 되면 방문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방문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분이 나와 가지고, 우리 의회니까 의회 쪽에 의원 한 분 모시고 시청 쪽에 한 분 직원을 모셔가지고 담화를 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질문 겸 제 개인적인 제안이기도 한데요, 지금 슬로베니아의 지방 시청을 방문해서 행정 담당자와 슬로베니아의 지방행정제도와 운영 현황은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확실히 안 정해지셨으면 예를 들면 복지분야랄지 환경분야랄지 이런 쪽에 특별한 시장이 와서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하지 않을 바에야 우리 성동구에 가장 시급한 행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 국장이랄까 이런 분들하고 대담을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월드투어แคม프 대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리는 아닌데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하실 거나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진행하시죠.

●○○○ 위원 여기 출장의 필요성에 보면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이거는 사무국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번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 서무주임 이명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성동구의회는 한 번도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쪽으로 출장을 나간 사례는 없어요.

3번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당 해외사무소나 외국기관에 인력을 파견되는 경우는 없고 저희도 현재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 아니 1번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보고서를 나중에 작성을 하시겠지만 언론에 보면 그냥 관광 쪽으로만 갔다 왔다, 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말들이 나올 텐데,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을 뭐 하러 갔느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회사무국 서무주임 이명진 공무국외출장은 올해부터 많이 규정이 엄격해졌어요.

현지에 가서 관계자랑 질문을 주고받는 내용까지 다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쪽 현지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자료 등을 받기 때문에 인터넷 수집자료하고는 차별되리

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 위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두 번째도 보면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될 자료가 없으니까, 2번 보면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무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회사무국 서무주임 이명진 내년부터 심사를 할때는 심사표에 맞춰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리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표를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부정과 긍정이 섞여있네요. 예를 들면 1번에 2번 같은 경우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에는, 그걸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사 의정팀장 조남문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심사를 많이 해보고 공무로도 많이 나가봤는데 이게 심사기준표가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적시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출장경비의 적정성이 있는데,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안 받고 있는 거죠?

●간사 의정팀장 조남문 없습니다. 조례와 법률에 근거해서 합니다.

●○○○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부분은 참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압니다.

현지 교통수단이야 연수업체 쪽에서 다 했을 거고.

●간사 의정팀장 조남문 예. 확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저도 공무로 옛날에 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연수업체의 역할이 가장 크다

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 업체를 섭외하는 이유가 그 기관에 방문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 시장을 못 만나면 부시장이든 거기 의회 부의장이든 그 정도 레벨의 분들을 만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구의회니까 거기도 지방의회가 있으면 그런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섭외부분이 좀 어떻게 싶어서, 사무국에서 어렵히 다 판단하셨겠지만.

●**간사 의정팀장 조남문** 방문 전까지 그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정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내 같으면 맞춰서 우리가 좀 유동성 있게 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경험이 많은 곳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 여기 출장자의 적합성에 보면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재무랑 복지건설로 위원님들이 나뉘져 있는데, 여기 1,2,3번이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어떻게 답을 써야 할지.

다 분야에 맞춰서 선정을 하셨을 거는 같은데 그런 배경을 모르니까 출장자의 적합성 1,2,3번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간사 의정팀장 조남문**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위원회가 세 개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행정재무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그 해당분야 쪽을 더 관심 있게 가서 보시고 출장보고서를 써달라는 취지로 위원회 구성이 돼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또 개개인별로는 다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와 관련해서 쓰실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나 출장자 선정은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심사표 작성 및 제출)

●**위원장 ○○○**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제가 심사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다수결로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이번 공무수행은 진행이 될 걸로 되겠죠?

결정하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못 다하신 업체나 의회 측에 부가적으로 당부하거나 제안

하시거나 이런 말씀이 계시면 그런 것들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이게 가결이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이 단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좀더 좋은 이번 연구 방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제출하셨으니까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경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제가 한 말씀.

지금 공무국외출장이 다른 지방의회들은 몇 군데는 취소하고 여행경비를 환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결정을 한 의회들의 정서나 지역 정서도 참작을 해서 국외출장이 헛되지 않게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해서 보고서도 잘 쓰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잘 다녀온 걸 칭찬할 정도로,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보고서나 내용을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저도 여기 ○○○ 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요 항상 의원님들이 외국을 다녀오다보면 보고서에서 굉장히 누락된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 갔다와가지고 또 공무로 갔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재래시장과 도시경관 쪽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면 도서관 말고 어떤 식으로 하고 우리 후학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저는 여기 지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 지금 공식방문이라고 한 네 군데 정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식방문으로 잡혀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성동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가지적으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담당자를 누구라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해서 공식방문을 보고서 위주로 해서 쓰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 위원 저는 의원님들이 해외를 나가셔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성동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해갖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위원 단 5일 동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올지 모르겠지만 계획한대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다른 공무로 가고 출장 일정표를 보면 면담자들의 방문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격에 맞는, 물론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문업체를 섭외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섭외를 하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 공식적인 방문은 거기 방문했을 때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지, 격에 맞는, 물론 직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로 직급을 좀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 만들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디까지나 관광이 아니고 공무, 공공 예산으로 의정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공식방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게 관광이라는 그런 인상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적이든 대외적으로 표기하는 데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월드투어캠프’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저 같으면 공항 도착, 숙소 도착 이런 개인적인 것은 일정을 나눠주실 때 일정부분으로 따로 하시고요 그건 지역적인 문제고, 두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제가 제 의견 보태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파란 글씨 현장방문 하고 빨간 글씨 공식방문이 있어요. 이게 현장방문도 사실은 공식방문이죠.

그러니까 공식방문 빨간글씨하고, 파란글씨로 현장방문은 공식방문이 아닌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다 공식방문인데 공식방문은 ‘기관방문 및 대담’ 이런 표현을 써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담자 이름과 직책 그리고 주제, 될 가지고 얘기하냐, 이렇게 해야 어디에 가서 누구랑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좀 분명해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공식방문이라고 되어 있는 2일차 자그레브대학교를 ‘기관방문 및 대담’ 그 다음에 두브로브닉 관광청 가는 데도 ‘기관방문 및 대담, 대담자, 대담주제,’ 아까 시청 가는 데도 이렇게 표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방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현장을 그냥 방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탐방이나, 견학은 조금 용어가 그러니까 ‘현장탐방’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게 ‘공식적인 연구방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비공식적인 일정이나 이런 용어는 과감하게 삭제 했으면 합니다.

여기 우리 언론사 게시지마는 언론에서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끼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편견을 갖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유명한 관광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주제넘게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 심사표에 근거해서 본 건 2019년도 성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성동구의회와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소기의 성과를 얻어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11시52분 산회)